



사진

옥동중 2-3 김아윤

찰칵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너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짹짹하고 인화가 완료되는 순간
너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담아낸다.

냉장고에, 서랍 속에, 일기 속에
우리의 흔적을 곳곳에 뿌려놓고
문득 아련해지는 기분에 너를 들여다본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파서.

너는 모든 걸 담아낼 순 없어도 우리를 담아냈으니까.
우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는 네가 있는 거 아닐까.

